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5년 10월 일 (제343회) |

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 안 자 | 산업경제위원장 |
| 제안연월일 | 2015년 10월 일 |

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안연월일 : 2015년 10월 일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장

제안 이유

-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(WTO)에 쌀 관세율 513%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
-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였고,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.78달러,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에 낙찰 됨
-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내 식량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
-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(TRQ)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적극 나서 재고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.

붙임 : 건의안

보낼곳 : 청와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표, 새정치민주연합 대표, 정의당 대표,
국무총리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통일부장관, 기획재정부장관,
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외교부장관

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

지금 우리의 농촌 들녘은 수확기를 맞아 황금물결로 출렁이고 있다. 이는 지난 봄 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이다. 그러나 최근 2년간 풍작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.

1995년 세계무역기구(WTO)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. 또한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수입쌀에 관세율 513%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다.

그간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감안하면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의 삭제는 그나마 농민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다.

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8일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, 또다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하였다. 그 결과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.78달러,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로 낙찰됐다.

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함께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. 이에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.

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재고 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.

하나,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.

하나, 정부는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(TRQ)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.

하나,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.

2015. 10. .

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